

LG화학, 노사분규 손실 1000억원 육박

산자부, 6개 기업 수출차질 10억5300만달러 ... 금호타이어 248억원

2003년 노사분규로 LG화학은 15일만에 생산차질 922억원, 수출차질 3000만달러를, 금호타이어는 8일만에 생산차질 248억원, 수출차질 15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가 2003년 12월20일부터 2004년 2월5일까지 2003년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146개 제조기업(155개 사업장) 가운데 생산 및 수출 차질이 발생한 113곳(1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노사분규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차질액은 2조4972억원, 수출차질액은 10억53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근로 손실일수가 7.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진중공업, LG화학 등 대기업의 파업이 집중되면서 생산차질액 증가율은 45.3%, 수출차질액 증가율은 73.2%에 달했다.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 비해 파업일수가 5일에서 28일로 증가하면서 생산 1조3852억원(전체의 55.5%), 수출 6억2900만달러(59.7%)의 차질을 빚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생산 및 수출 차질규모가 5544억원, 2억6300만달러인 기아자동차를 포함하면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차질액은 전체의 77.7%와 84.7%에 달한다.

쌍용자동차는 단 2일 동안의 분규로 생산중단액이 134억원에 이르렀고 LG화학은 분규 15일만에 생산 922억원, 수출 3000만달러, 금호타이어는 분규 8일만에 생산 248억원, 수출 15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규가 117일로 가장 길었던 한진중공업의 차질액은 생산 820억원, 수출 6700만달러로 조사됐다.

6개 사업장에서 나타난 차질액은 전체 제조업의 86.2%, 95.3%로 전년대비 각각 21%p, 22%p 상승해 대형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전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했다.

다만,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수출차질은 파업 전후 시간의 근무 및 휴일근로 등으로 일정부분 보전됐으며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말까지 20%, LG화학은 사전 재고물량 확보 등으로 차질을 상당 부분 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기업의 생산·수출차질액

(단위: 억원, 100만달러, %)

	구 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LG화학	금호타이어	합 계
2003	생 산 차질액	13,852 (55.5)	5,544 (22.2)	134 (0.5)	820 (3.3)	922 (3.7)	248 (1.0)	21,520 (86.2)
	수출 차질액	629 (59.7)	263 (25.0)	-	67 (6.4)	30 (1.9)	15 (1.4)	1,004 (95.3)
	분규일	28	37	2	117	15	8	207
2002	생 산 차질액	5,500 (32.5)	4,500 (26.2)	970 (5.6)	7 (0.04)	-	148 (0.9)	11,125 (65.24)
	수출 차질액	275 (45.2)	140 (23.0)	31 (5.1)	0.6 (0.1)	-	-	446.6 (73.3)
	분규일	5	19	7	부분파업	4	6	41

† () 안은 전체 생산·수출차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편, 6개 사업장을 제외한 국내 생산 및 차질액은 2002년보다 오히려 43%, 69.6% 감소했다.

제조업의 노사분규는 169건으로 2002년 136건에 비해 24.3% 늘었고 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79만6931일로 7.4% 증가한 반면, 전체 산업의 노사분규는 320건(-0.6%), 근로손실일수는 129만8668일(-17.8%)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3>